

JIR NEWS

우리 집 이야기

2023
VOL.17

농생명 바이오산업의 가치창출을 통한 그린바이오 생태계 조성에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앞장서겠습니다.

- 바이오진흥원, 농생명산업 주도 전북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 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 수행으로 메디바이오 신산업 육성 박차
-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기술사업화 지원 나서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유통판매업 규제완화 역할 선도
- 4차 산업혁명시대 농생명산업 선도를 위한 역량강화 특강
- 전북 먹거리정책 통합 워크숍 열어
- 농생명산업 우수인력 공급을 위한 취업연계 교육과정 시행
- 순창 지역기업 현장방문, 농식품산업 상생발전 협력방안 강구
- 바이오진흥원-전북도-도의회, 익산 대표기업 현장 찾아 지역산업 발전방안 모색
- 상생협력 통한 지역 농업-기업의 동반성장에 앞장서
- 「2023 수원 팔도밥상페어」 참가로 도내 수산제품 수도권 판로개척



전라북도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역소재 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주요기능 및 역할

1 기획경영



-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기획
- 기관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성과 관리
- 혁신기관 산학연 네트워크 협력 강화

2 농생명산업육성



- 농생명·바이오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전통식품 활성화 및 상생협력 지원
- 전라북도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

3 R&D 및 기술사업화



- 농생명·바이오 분야 R&D 사업 기획
- 지역 특화 소재 활용 고부가 R&D 지원
- 우수 연구성과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

4 수출지원



-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 전북 농식품기업 B2B상담 및 수출활성화 지원
- 수출 중소기업 판로확대 역량강화 지원

5 생산·분석 지원



- 건강기능식품(GMP) 제형화 연구 및 생산 지원
- 자가품질검사 및 영양성분 등 품질분석
-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개발 등 상품 경쟁력 강화

6 창업·일자리 창출



- 농생명·바이오 특화 창업보육 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
- 현장 교육 및 실무형 우수 인재 양성
- 기업 맞춤형 고용연계 일자리 창출



2023 VOL.17

바이오진흥원,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04

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 수행으로 메디바이오 신산업 육성 박차 06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기술사업화 지원 나서 07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유통판매업 규제완화 역할 선도 08

4차 산업혁명시대 농생명산업 선도를 위한 역량강화 특강 09

전북 먹거리정책 통합 워크숍 열어 10

농생명산업 우수인력 공급을 위한 취업연계 교육과정 시행 11

순창 지역기업 현장방문, 농식품산업 상생발전 협력방안 강구 12

바이오진흥원-전북도-도의회, 익산 대표기업 현장 찾아 지역산업 발전방안 모색 13

상생협력 통한 지역 농업-기업의 동반성장에 앞장서 14

「2023 수원 팔도밥상페어」 참가로 도내 수산제품 수도권 판로개척 15

진흥원 안내도 16



발행처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발행일 2023년 8월 전화 063-210-6500

홈페이지 www.jif.re.kr 주소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JIF NEWS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구독신청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진흥원,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지난해 민선 8기 취임 후, 전북도정 5대 목표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를 선정하고 10대 역점시책으로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생명산업 육성'을 지정하는 등 농생명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 농생명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의 홍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6월 13일, 도내 20개 기관이 참여하여 14년부터 운영해온 전라북도 농생명연구협의체를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로 개편하며 참여기관을 28개로 확대하고 바이오 거점지역으로 대전환에 나섰다. 첨단농업, 종자, 미생물, 식품, 동물의약품, 첨단축산 6대 분야로 나뉘어 있던 협업 주제를 새만금농생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반려동물 말산업 4개 분과로 융합 및 집중하여 성장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바이오진흥원은 위원회 주관기관으로서 지역차원의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올바른 추진방향 모색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4대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총괄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 공동선행연구추진단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고취시키고 지역 현안 해결 및 국책사업 발굴 가능성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반증하듯 올해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지원사업(사업비 159억), 첨단 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사업(사업비 35억)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선정되어 바이오기술 고도화와 산업혁신 기반구축에 두드러지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메디컬바이오 실용화지원 기반구축사업은 2027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15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자가포식 제어 기술 기반의 세포 동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신약 및 건강기능식품, 코스메슈티컬 개발 기업을 상대로 소재 발굴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다.

자가포식 제어 기술은 여러 병리 조건에서 손상되거나 불필요한 특정 세포소기관만을 선택적으로 분해 제거하여 세포소기관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필수 기전으로 2016년 자가포식 조절 기전 연구가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이래 다양한 난치성 질환의 치료제로서 주목 받고 있는 기술분야로 추후 제품화 지원체계까지 갖추어진다면 글로벌 시장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바이오진흥원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오던 그린바이오 분야에서 더 나아가 화이트, 레드 바이오 분야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활발한 마케팅 지원 활동을 통한 지역기업의 직접적인 매출 증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수원/일산 메가쇼 및 서울푸드 2023에 각각 도내기업 45개사, 44개사와 함께 참여하여 약 9억원의 현장판매를 기록하며 참가기업 중 대부분이 완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행사장을 방문한 수출 전문 무역상사 및 해외 유망 바이어와 총 91억원(수출 57억, 국내 34억)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판로개척 지원으로 해외시장 확보에도 좋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거기에 올 10월 개최 예정인 제21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바이오진흥원이 운영 중인 전라북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수산가공식품은 물론 올해 신설된 전북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14개 시군의 다양하고 신선한 특산물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K-Food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지역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행사로 거듭나도록 발돋움해 나갈 것이다.

한편 로컬푸드 발상지이자 지역 푸드플랜 선도도시인 전라북도의 2단계 도약을 위해 시군활성화 기반 먹거리 순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시군 간 격차 및 자원불균형 해소가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바이오진흥원은 '14개 시군 먹거리정책 동반자'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센터 간 연계활성화 및 먹거리 통합 정책 수립, 조례 등 제도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0년까지 직매장 1500억원, 학교급식 1400억원, 복지급식 700억원, 공공기관 330억원 등 연 5000억원 규모의 지역먹거리 관계적 경제 창출이 예상되며,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 청년농 겸업농을 지역먹거리 주력군으로 조직한다면 소득 양극화 해결은 물론 젊은 귀농귀촌자도 큰 비용지출 없이 지역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실효성 충만한 인구유입 전략으로 사용되어 2만여 가족소농 유지 및 재생산 효과창출로 인한 지역소멸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다.

이처럼 바이오기술 고도화와 농생명산업 혁신기반 구축, 마케팅 지원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농생명산업 수도로 비상하는 전북의 모습이 기대된다. **JIF**



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 수행으로 메디바이오 신산업 육성 박차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과 전라북도는 경북대학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과 함께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도 미래기술선도형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공동 활용 연구개발 인프라를 대학, 공공기관 등 비영리 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핵심 기술기반의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18개 과제를 지정공모 하였다.

이 중 선정된 과제는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메디컬 바이오** 실용화지원 기반 구축' 사업으로 2027년까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 15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사업을 통해 대사성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타깃으로 하여 미토콘드리아를 비롯한 7대 세포소기관에 대한 자가포식 제어 기술 기반의 세포 동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신약, 건강 기능식품, 코스메슈티컬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소재 발굴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자가포식 제어 기술은 여러 병리 조건에서 손상되거나 불필요한 특정 세포소기관만을 선택적으로 분해 제거하여 세포소기관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필수 기전으로, 2016년 자가포식 조절 기전 연구가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이래 다양한 난치성 질환의 치료제 표적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 분야이다. 이번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북대학교 조동형 교수를 비롯한 국내 연구자들의 기술 수준이 높아 추후 제품화 지원 체계까지 갖추어지면 글로벌 시장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바이오진흥원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생산장비와 품질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메디바이오 핵심 소재 활용 건강기능식품 시제품 생산 및 제품개발을 담당하게 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발굴을, 대구 지역에 위치한 경북대학교(주관기관)의 세포소기관 연구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대구테크노파크 한방뷰티센터는 세기관이 협력하여 세포소기관 자가포식 기능성 평가 및 제품화 지원을 수행한다.

이번 과제를 통해 참여기관의 특징점을 강화하여 각 지역의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초광역권 연계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국가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첨단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차별화된 제품개발을 통해 지역 농생명·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IR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 메디컬바이오에 적용 가능한 소재로 새로운 작용 기전 신물질 등 혁신적인 후보물질

**메디컬바이오 : 신약, 코스메슈티컬(화장품+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통칭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기술사업화 지원 나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5월 24일(수),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과 「우수 농생명·바이오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수기술을 보유한 전북지역 중소기업 발굴 및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그린바이오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이전과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진흥원 보유 기술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라북도 농생명 식품 및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바이오진흥원은 지역 내 우수기술 창업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에 기술평가 기술금융 기술이전 등 금융 비금융 상품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 농생명 바이오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호남권 바이오융합산업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협약 내용에 따라 양 기관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농생명 바이오 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지원과 투자 유치를 위한 기술가치 분석 및 기술경영 컨설팅, 기술거래, 지식재산경영인증 및 지식재산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 김영탁 호남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북도 우수 그린바이오 기술기업의 창업과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관 간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스마트 테크브릿지 등 기술이전 플랫폼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바이오진흥원은 전라북도 지자체출연기관 중 최초로 연구소기업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여건의 기술이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농생명 바이오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IF**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유통판매업 규제완화 역할 선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내 식품유통전문판매업 허가 관련 규제 개선안을 제안하여, 지난 2월 9일(목)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를 거친 끝에 법령개정이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되었다고 밝혔다.

바이오진흥원 창업보육센터는 예비 및 초기창업자들을 위한 입주 공간으로서 아이디어를 상품화한 제품의 자체생산이 어려워 OEM생산으로 판매하는 기업이 대다수이나, `21.5.27에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해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개정·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상 연구시설로 분류되어 유통전문판매업이 불허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바이오진흥원은 `21년 6월, 전북도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자체 생산이 아니어도 판매 및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현장중심의 규제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이후 전북도와 전주시의 현장 방문 및 의견 수렴, 정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심판회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규제심판부는 창업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상품의 판로개척 등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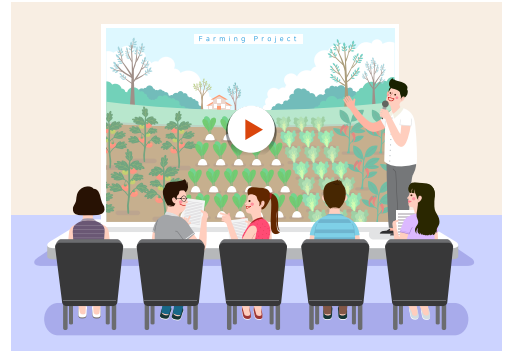
이로써 현재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내 187개 식품제조업체가 제도개선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농·식품·바이오 창업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바이오진흥원이 유통전문판매업 불허로 입주를 망설이던 기업들에게도 입주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보다 폭넓은 우수기업 발굴 기회가 제공되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금번 규제 개선 제안의 사례기업으로 소개된 반다크브라운 박희선 대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유통전문판매업 허가 문제가 잘 해결되어 저를 포함한 전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사업화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기업 입주환경 규제 개선에 애써주신 진흥원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앞으로 증가할 입주 희망 기업 수요에 대비하여 추가 입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다각화 및 사업발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의 긴밀한 소통뿐 아니라 현장 애로해결을 위해 전 임직원이 전사적으로 대응하여 전라북도 농식품산업 육성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4차 산업혁명시대 농생명산업 선도를 위한 역량강화 특강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라북도의 첨단기술융합 농생명 바이오 산업 선도를 위한 진흥원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라승용 前 농촌진흥청장을 초청하여 '농업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라 전 청장은 고려대학교에서 농학 석사 및 원예학 박사를 취득 후 국립축산과학원장, 국립농업과학원장,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하고 작년 전라북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농생명추진단장을 맡는 등 농생명 바이오 전문가로 꼽힌다.

이번 특별강연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농업의 변화, 기후위기 속 농작물 재배지의 복상 문제, 농업에서 AI와 로봇의 역할, 전북 농업의 현실 및 경쟁력, 대한민국 농업의 가능성 등을 자세한 예시와 함께 설명하였으며, 스마트팜, 치유농업, 푸드테크와 같이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농생명산업 이슈에 대해서도 강의하였다.

라 전 청장은 "한국의 농업기술력은 세계 5위 수준의 높은 편으로 이를 잘 활용하여 발전시켜 나간다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를 중요한 과제로 삼은만큼 바이오진흥원의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전라북도 및 대한민국의 농생명산업 발전에 있어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특별강연을 계기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도모하여 농생명 바이오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f**



전북 먹거리정책 통합 워크숍 열어



전라북도 먹거리 정책담당자, 영양(교)사, 시군센터 관계자 등 14개 시군의 먹거리 일꾼 8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에 따르면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부안군 소노벨 변산에서 '전라북도 먹거리정책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먹거리 정책 선도지역인 전북이 1시군 1통합센터 전략을 통해 먹거리정책 공공성 강화와 시군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기획되었고, 바이오진흥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전북센터)에서 주관하였다.



워크숍은 중앙정부 및 전북도 먹거리정책 공유, 시군 선도사례 발표, 특강 및 분임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별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2023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가져 참여 시군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은 분임토론을 통해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중심의 먹거리정책 통합 및 공공성 강화,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한 기획생산체계 구축 및 안전성 확보, 지역농업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 내외 관계시장 창출과 센터 간 교류 확대 등 지역먹거리선순환 촉진을 위한 필수과제를 공유하였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워크숍은 14개 시군 먹거리정책 일꾼이 모인 첫 사례로, 비전 공유와 튼튼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의 먹거리선순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기회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전북도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축사를 통해 "1시군 1센터 정책을 통한 시군 먹거리선순환 기반 구축과 센터간 교류 촉진을 위한 광역센터의 현장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신규시책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도정에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전북센터는 이번 워크숍의 성과를 시군 간담회 및 현장 포럼으로 이어가고, 센터 간 교류 촉진을 선행요건인 전북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을 연내 개발하여 14개 시군센터에 현장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jir**



농생명산업 우수인력 공급을 위한 취업연계 교육과정 시행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식품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취업자 및 관련분야 졸업자 20명을 대상으로 '식품 품질관리자 양성과정 2기' 및 '식품 시험분석운영자 양성과정' 교육 발대식을 7월 11일 개최하고 8월 21일까지 6주간의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2023년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예비취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식품산업 직무별 인재양성 및 고용창출을 위해 식품기업의 필수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 진행된다.

교육 커리큘럼은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식품 법규, 품질인증, 분석장비 운영방법, 기업 및 유관기관 현장실습 등)과 성공적인 취업 연계를 위한 기업초청 세미나, 멘토링 지원, 취업캠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일자리 유관기관, 기업 및 대학과의 고용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채용연계 촉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전북의 대표 산업인 농생명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일자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무형 인재양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JIF



순창 지역기업 현장방문, 농식품산업 상생발전 협력방안 강구



전북도와 도의회, 그리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5월 12일, 순창지역 우수 농식품기업의 생산현황과 경영 애로진단을 위해 기업방문을 통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순창지역 2개 기업(순창장류(주), 순창성가정식품)에 대해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위원, 전북도 이지형 농생명식품과장이 함께하여, 기업의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운영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대표 정봉주)는 국내산 콩을 사용하여 장류 활용 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순창에서 생산되는 콩을 수매하는 등 지역 농산물 유통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22년에 바이오진흥원에서 기술지원을 통해 발효식초 기능성 효능평가 지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장류 산업을 넘어 소스류 등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여 대한민국 식품시장에 도전하고 싶다는 당당한 포부를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순창성가정식품(대표 김종덕)은 1996년 설립 후 메주, 고추장, 간장, 청국장 등 전통식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식품산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식품안전의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증(ISO22000, FSSC22000)을 획득하였다. 장류 외에도 다양한 제품과 절임류 홍보를 위해 바이오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매년 참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위원은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해 지역 도민들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이지형 농생명식품과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순창지역 우수 농식품 기업의 성장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던 만큼, 앞으로 현장밀착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전북도-도의회-진흥원이 함께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고민하며 해결책을 강구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다.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농식품 기업들이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바이오진흥원-전북도-도의회, 익산 대표기업 현장 찾아 지역산업 발전방안 모색



전북도와 도의회,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이 전북 농생명 식품산업의 활력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익산지역 대표기업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익산 소재 냉동과채가공 대표기업인 (주)팜조아 농업회사법인 본사에서 바이오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 및 전북도 이지형 농생명식품과장이 함께해 기업의 사업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팜조아 농업회사법인(대표 황은경)은 지난 2016년 익산에 독자적인 급속냉동 식품제조공장을 설립해 간편조리 밀키트 등 제품 다양화 및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 전북도와 바이오진흥원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냉동 과채가공 분야 선두로 발돋움한 기업으로, 국내 대형 유통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채소믹스, 천연향신료, 밀키트를 납품하는 등 매출을 늘리고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지역 농가소득 안정화와 지역상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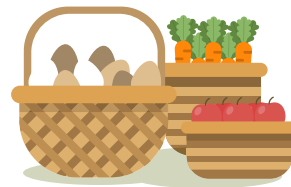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 농식품 가공기업이 생산농가와 연계 및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비자지향 상품개발과 함께 내수를 넘어선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확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협력방안이 제시되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은 "지역 발전방안은 현장에 답이 있다. 지역 기업의 현안과 건의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바이오진흥원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이지형 농생명식품과장은 "도내 농식품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도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해결책을 찾아 지역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진흥원이 지역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판로확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JiF**

상생협력 통한 지역 농업-기업의 동반성장에 앞장서



전라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이 지역 농업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전북 농생명산업의 동반성장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도와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6월 14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Kick-off 회의를 열고 지역 농업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방안과 지속적인 연계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은 전북 도내 농산물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에게 농가 계약재배를 매개로 가공용 농산물의 생산, 이용 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판로확보와 소득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북도가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6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본 사업은 금년도 생산자단체 12개소, 식품기업 9개소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쌀, 콩, 배추, 참깨, 들깨 등 15개 품목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도내 399개 농가 이상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생산자단체 12개소와 식품기업 9개소 관계자를 포함하여 전북도, 바이오진흥원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과 기업 간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 '지역농업과 식품기업 상생발전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도 진행되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전라북도 농식품산업의 근간이 되는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이 서로 상생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환경 조성 및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식품기업의 안정적인 원물조달이 가능한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F**



「2023 수원 팔도밥상페어」 참가로 도내 수산제품 수도권 판로개척



전라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속적인 원재료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우수 수산식품 기업과 함께 지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수원 팔도밥상페어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2023 수원 팔도밥상페어는 국내 오프라인 플랫폼 전문기업인 메가쇼(megashow)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1차식품, 인증제품, 간편식, 유기농 등 전국 각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과 다양한 국산 식품을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 판매전이다.

바이오진흥원에서는 이날 박대, 계장, 김부각, 추어탕, 오징어먹물 소시지, 낙곱새, 다시 팍(육수) 등을 주력으로 MZ세대 고객에 맞춰 기본 박람회 컨셉을 벗어 던지고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아재포차, 아빠의 삼시세끼 등)으로 전라북도 해양수산공동관(23개 업체)을 운영하여 1억5천6백만원의 현장 판매와 1천3백만원의 계약 성과를 올렸다.

한편 사전에 고객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참가자 전원이 요리사 복장을 착용하는 등 차별화된 판매전략을 통한 유쾌하고 재치있는 분위기 조성하여 관람객들의 관심과 재방문을 이끌었다.

현장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이번 행사에 참가한 그린팜푸드(낙곱새)와 아이딸부각(김부각) 2개 업체는 국내 바이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유스타팜, 군산박대수산, 제이웰푸드, 라온푸드 등 9개 업체는 연일 완판 행진을 이루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 기업의 대표는 “전라북도 수산 제품에 대한 현장 반응이 뜨거웠으며, 매일 완판 행진으로 공장에서 제품을 공급하는데 힘은 들었지만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장마기간에 폭우까지 더해져 판매가 걱정스러웠지만 바이오진흥원만의 창의적이고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 방식은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판촉행사는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우수한 수산물들을 수도권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박람회참가, 온라인 판매 및 국내·외 판촉활동 지원 등을 통한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F



진흥원 안내도

본관(첨단바이오·식품센터)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본관
- 벤처기업 입주공간 제공
- 연구개발 공간

식품분석센터



- 연구개발 및 품질검사
- 영양성분 등 특정검사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



- GMP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설
- 기술력 위주의 유망기업 입주

바이오플렉스 창업보육센터



- 창업기업 입주
- 온라인 화상상담실

비즈니스센터



- 도내 식품기업 상품 전시관
- 바이어 상담실
- B2B 화상 상담실

찾아오시는길

